

세계적 문화도시 대구로 가는 첫 발 내딛다!

[2009-07-28 오후 3:27:56]

(재)대구문화재단(대표 김순규)은 7월 29일(수) 오후 3시 대구 중구 대봉동 대구문화재단 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판제막식은 지난 5월 20일 대표이사 선임 이래 직원 공모 등 정상운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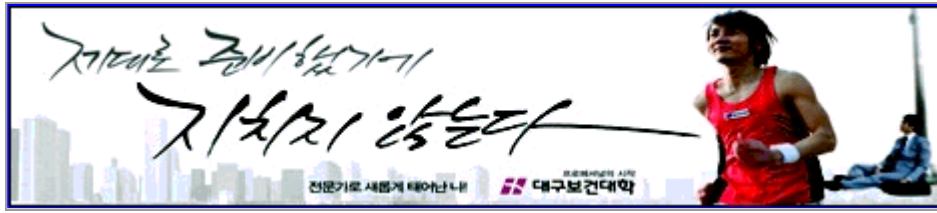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최영은 대구예총회장 등 문화예술계 및 각계의 유관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순규 대구문화재단 대표는 현판식을 앞두고 “대구문화재단은 앞으로 대구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구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를 개발해 널리 알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구문화재단은 대구의 문화브랜드의 경우 대구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동시에 대구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으로 ‘왈츠와 공연의 도시’, ‘창작패션의 도시’, ‘옛 골목의 도시’, ‘서정시 읽는 도시’, ‘청소년합창의 도시’ 등 10가지의 문화브랜드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제막식에는 ‘왈츠8중주단’이 참석하여 ‘왈츠와 공연의 도시’를 상징하는 밝고

경쾌한 왈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주오기자(kim-yns@hanmail.net)

※ 이 기사 주소 : <http://www.dg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3690&ASection=001010>

[인쇄하기] [닫기]